

故事的 詩的 變容과 傳承*

— 「東國四詠」 연구의 일환으로 —

성 범 증**

1. 머리말

「東國四詠」은 고려 후기의 문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金富軾(1075~1151)·鄭絃(1115경~1171)·崔謙(1135~1211)·郭預(1232~1286)의 고사를 대상으로 작시한 데에서 비롯되어 及菴 閔思平(1295~1359)·圓齋 鄭樞(1333~1382)·柳巷 韓脩(1333~1384)·陽村 權近(1352~1409) 등을 거쳐 조선 전기의 梅月堂 金時習(1435~1493)에게까지 전승되었던 일련의 작품군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우리 나라[東國]를 대표할 만한 네 인물의 풍류스러운 고사를 읊은 시[四詠]”라는 뜻이다. 그 대상 인물은 모두 고려시대의 권문세가 출신들로서 각기 독특한 故事를 남김으로써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필자는 「동국사영」 작품군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이미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그 작품군이 지니는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검토하고 또 개별적인 고사의 詩的 變容과 傳承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¹⁾

곽예의 고사는, 비가 오면 그가 맨발로 우산을 가지고 開京에 있는 龍化院의 崇敎寺 못가에 가서 연꽃을 구경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이 중심이다. 이제현을 비롯한 후대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아름답게 여겨서 즐겨 시적 소재로 삼았고, 또 그것을 「동국사영」의 하나로 꼽았으니 그들은 곽예의 이 고사를 통해 그의 소탈한 면모와 風流를 높이 사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곽예의 생애와 그 고사를 일별한 다음, 그 고사를 다룬 작품들을 「동국사영」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해지는 한시까지 포함하여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후대인들이 곽예 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곽예의 생애

곽예는 고려의 문신으로 初名이 王府, 字가 先甲, 본관이 淸州이다. 1255년(高宗 42) 장원 급제하여 全州司錄이 되었다. 1263년(元宗 4) 詹事府錄事に 補任되어 洪淳과 함께 和親牒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잡혀간 고려인의 송환을 요구하고, 귀국 후 禮賓注簿 兼 直翰林院을 지냈다. 忠烈王이 즉위한 뒤 版圖正郎·寶文署待制·知製誥·必闈赤·國子司業·典法摠郎·衛

1) 줄고,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韓國漢詩研究』 4집(太學社, 1996. 12) 및 「金富軾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1(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2), 「崔謙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2(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12) 참조.

尉尹·春宮侍講學士를 역임하였다. 1282년(忠烈王 8)에는 右副承旨로서 同知貢擧를 겸한 뒤 左承旨·國子監大司成·文翰學士를 거쳐 1286년 知密直司事·監察大夫로서 聖節使가 되어 元나라에 갔다 오던 길에 병사했다.²⁾ 그는 문장에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高麗史』 「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사람됨이 平淡·勁直하고 謙遜·樂易하여 비록 貴顯에 이르러서도 布衣 때와 같았고, 글을 잘 짓고 書法이 瘦勁하여 一家의 체를 이루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翕然히 일변하였다. 그가 翰林院에 있을 때 매번 雨中에 맨발로 우산을 가지고 홀로 龍化池에 이르러 연꽃을 감상하니 뒷사람들이 그 風致를 높이 여겨 그 일을 읊는 사람이 많았다.³⁾

여기에서는 그가 성품이 平淡·勁直하고 겸손하여 벼슬이 높아져서도 그 이전과 같았다는 점, 글과 글씨에 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비가 오는 날 龍化池의 연꽃을 구경하러 다닌 일화를 제시하고 그 일을 풍류스럽게 여긴 後人들이 그 사실을 많이 읊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일화는 이미 익재 이제현의 『櫟翁稗說』에 소개되어 알려졌다. 바로 이 일화가 그를 「동국사영」의 대상인물이 되게 한 所以가 된다.

3. 「동국사영」 관련 고사

2) 이상의 사실은 『高麗史』 권106, 「列傳」 권19, ‘郭預’ 조에 나온다.

3) 爲人平淡勁直 謙遜樂易 雖至貴顯 如布衣時 善屬文 書法瘦勁 成一家體 當世效之 翕然一變 其在翰林院每雨中 跣足持傘 獨至龍化池賞蓮 後人高其風致 多詠其事.(위와 같음)

최당의 생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그의 소탈함과 풍류를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翰林學士로 있을 때 비가 오면 맨발로 우산을 가지고 龍化院 崇敎寺의 못가로 가서 연꽃을 감상했다는 일화이다. 이 고사와 관련한 그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었음을 이 제현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어에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이를 ‘聖者’라고 일컫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원 급제한 사람으로서 성자의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광예공뿐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광공이 한림이 되었을 때 매년 비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맨발로 우산을 들고, 홀로 용화원 승교사의 못가에 와서 연꽃을 구경하였으니 어찌 성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광공은 시에서

연꽃을 구경하러 세 번 三池에 오니
푸른 일산 붉은 단장이 옛날과 같네.
다만 꽃을 보는 玉堂의 손님이 있어
風情은 아직 줄지 않았는데 살쩍은 실과 같네.4)
(賞蓮三度到三池 翠蓋紅粧似舊時
唯有看花玉堂客 風情未減鬢如絲)

라고 했다.5)

이제현은 여기에서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일컬어 ‘聖者’라고 한다는

4) 이 시는 金宗直의 『靑丘風雅』에 <賞蓮>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金宗直의 注는 다음과 같다. “公爲翰林日 每遇雨 必洗足持傘 獨至龍化院崇敎寺池上 賞蓮.”
5) 俗語 以詭衆自負者爲聖者 人謂 壯元及第 不爲聖者之爲者 唯郭公預而已 或曰 郭公爲翰林日 每遇雨 必洗足持傘 獨至龍化院崇敎寺池上 以賞蓮花 豈非聖者乎 故公詩云 賞蓮三度到三池 翠蓋紅粧似舊時 唯有看花玉堂客 風情未減鬢如絲.(李齊賢, 『樸翁稗說』, 前集 2)

당시의 풍습을 말한 다음, 광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를 성자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두 방향으로 갈라져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성자의 범주 속에 넣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광예가 비가 오면 용화원의 승교사 못가에 가서 연꽃을 구경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현이 광예의 이 일화를 「동국사영」의 하나로 꼽은 것은 그런 정도의 행동은 너무 잘난 체 하는 성자의 범주가 아니라 독특한 풍류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 洪萬宗이 『小華詩評』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고 “그 기상이 素湯함을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평을 단 것으로 보아, 후대의 인물들도 광예의 이러한 행동을 풍류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⁶⁾ 또 홍만중은 광예의 시 <숙직하는 집(直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니, 그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근 발을 반쯤 걷고 층진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수많은 골짜기의 솔바람에 푸른 이내 움직이네.
한낮이 참으로 한가롭고 公事가 적어
창에 기대어 졸면서 鈞天廣樂⁷⁾을 들네.

半鉤疎箔向層巔 萬壑松風動翠烟
午漏正閒公事少 倚牕和睡聽鈞天

숙직하는 집에서 읊은 이 시에 대해 홍만중은 富麗한 가운데 閒曠한 뜻이 있다고 했다.⁸⁾ 부러하다고 한 것은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순탄한 관직

6) 密直每遇兩持傘獨至龍化院池上賞蓮 其詩曰 …… (中略) …… 其氣像素湯 至今可想.(洪萬宗, 『小華詩評』 卷上, 趙鍾業編,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 p.303)

7) 鈞天廣樂은 天上의 미묘하고 광대한 음악을 가리킨다.

생활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한광한 뜻이 있다고 한 것은 그런 관직 생활 속에서도 자연을 벗삼고 여유를 즐기는 삶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만종의 평가는 이제현이 『역옹패설』에서 언급한 관예에 대한 두 방향의 평가를 아울러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만종이 관예의 <賞蓮> 시에 대해 素湯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면, 홍만종의 위의 언급은 관예가 부려함보다는 한광함에 중점을 두고 관예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찾아갔다는 용화원 승교사의 연지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增補文獻備考』에서 1179년(明宗 9) 5월 乙丑에 용화원 못의 물이 피처럼 붉었다고 한 것과 1194년 5월 癸酉에 용화원 남쪽 못의 물이 10여 일 동안 피처럼 붉었다고 한 것⁹⁾으로 보아, 이 못은 늦어도 12세기에는 존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승교사는 개성의 남부 歡喜坊에 있으니 지금도 長竿과 趺石이 있다고 했고,¹⁰⁾ 용화지는 (개성)부의 동쪽 7리에 있다고 했다.¹¹⁾ 같은 장소인데도 승교사는 개성의 남부 환희방에 있다고 하고, 용화지는 개성부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종잡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못이 개성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이 책의 ‘龍化池’ 항목에는 관예와 崔漣(1287~1340)의 시 및 이제현의 <雲錦樓記>가 실려 있다.

최해의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목이 실려 있지 않으나, 같은 작품이 『동문선』 권20에는 <밀직 관예의 상런시에 좃아서 차운하다(追次郭密直預賞蓮詩韻)>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서 이 시가 관예의 <상런> 시

8) 郭密直預 題直廬詩曰 半鉤疎箔向層巔 萬壑松風動翠烟 午漏正閒公事少 倚總和睡聽鈞天 富麗之中 有閑曠意。(洪萬宗, 앞의 책, 같은 곳)

9) (明宗九年)五月乙丑 龍化院池水 赤如血 ……(中略)…… 二十四年五月癸酉 龍化院南池水 赤如血 凡十餘日。(『增補文獻備考』 권10, 「象緯考十」)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 下」.

11) 위의 책 권4, 「開城府」上.

를 차운한 작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붉은 단장 푸른 일산이 가을 못을 덮었는데
갈매기·해오라기 서로 의지하여 제철 만남을 기뻐하네.
지난 해 崇敎殿 지나던 때를 기억해 보니
얇은 구름 지는 해에 비가 실실이 내렸네.

紅粧翠盖擁秋池 鷗鷺相依喜得時
想得去年崇敎過 薄雲殘照雨絲絲

이 시를 지은 최해는 이제현과 같은 나이로서 곽예보다 약 50년 뒤의 인물이다. 그런데 최해는 곽예의 <상련> 시에 차운한 시를 짓고 이제현은 곽예의 고사를 『역옹패설』에서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일화를 「동국사영」의 하나로 꼽은 것은 이 시를 짓던 당시까지만 해도 곽예의 고사와 <상련> 시가 인구에 회자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현도 곽예의 <상련> 시에 차운한 작품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제현의 시를 차운했다고 하는 민사평의 「동국사영」(「東國四咏 益齋韻」) 중 곽예의 고사를 읊은 <郭翰林雨中賞蓮>의 운자가 곽예의 <상련> 시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그리고 『고려사』에는 嬖臣 朴良衍과 宋明理가 忠惠王에게 권하여 승교사의 연지 곁에 누각을 지어 遊宴의 장소를 만드니, 왕이 송명리에게 명하여 꽃과 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¹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제현과 최해는 용화원의 연지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연지 곁에는 누각이 서고 꽃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12) 閔思平의 시의 韻字는 池·詩·絲로 郭預 시의 池·時·絲와 한 글자가 다르지만, ‘詩’는 ‘時’의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閔丙秀, 『韓國漢詩講解』, 大學社, 1995, p.115 참조), 이 견해를 인정한다면 바로 이제현은 곽예의 <賞蓮> 시에 차운한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3) 又勸王 起樓崇敎寺蓮池旁 爲遊宴之所 王命良衍植花木.(『高麗史』 권124, 「列傳」 권37, <盧英瑞傳>)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민사평은 「동국사영」 이외에도 용화원의 연지에서 연꽃을 감상하는 시를 지어 관예의 풍류를 기리기도 했다.¹⁴⁾

관예의 일화로 인해 문인들에게 회자되었던 용화원의 연지에는 그 후 玄福君 權廉(1302~1340)이 1337년(忠肅王 6) 雲錦樓를 세우고 그의 宗族들이 모여 즐기던 곳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계현의 <운금루기>가 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龍化池’ 항목에 실려 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운금루기>는 『익재난고』에 수록된 것을 여기에 재수록한 것인데, 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京城의 남쪽에 한 못이 있는데 일백 묘쯤 된다. 그곳을 둘러 살림하는 여염집들이 비늘 같이 늘어서고 빗살 같이 즐비한데, 깊어지고 이고 말을 타고 걷는 사람들이 그 옆으로 줄을 이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어찌 그들이 그윽하면서 기이하고 한가롭고도 넓은 지역이 그 사이에 있는 줄 알랴?

그 후 至元 丁丑年(1337년) 여름,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 權侯가 보고는 그곳을 사랑하여 바로 못 동쪽에 땅을 사서 누각을 세웠다. 높이는 두 길이요, 너비가 세 길인데, 주추는 받치지 않았으나 기둥은 썩지 않게 하고, 기와를 덮지 않았으나 이영으로 새지 않게 하였으며, 서까래는 다듬지 않았지만 굵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았으며, 벽은 丹青하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 대략 이와 같은데, 온 못의 연꽃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에 그의 아버지 吉昌公과 형제·姻婭들을 초청하여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며 화평하고 유쾌하게 놀아, 해가 저물어도 돌아가는 것을 잊을 지경이 있다. 아들 중에 큰 글자를 잘 쓰는 자가 있어서 ‘雲錦’ 두 자를 쓰도록 하여 누각의 이름으로 삼았다.

내가 시험삼아 가서 보니 붉은 꽃 향기와 푸른 잎 그림자가 넓어서 끝이 없는데, 바람과 이슬이 낭자하고 烟波가 흔들리니, 이름을 헛되이 얻지 않

14) 閔思平, <約義軒洪鐸賞蓮>, 『及菴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3, p.62. 이 시는 뒤에서 논의된다.

있다고 할 만하였다.¹⁵⁾

권염은 그 생애가 짧기는 하였으나, 외척의 권세를 누리면서 풍류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여기에 대해 李穡(1328~1396)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權希顔의) 조부인 昌和公 權準(1280~1352)은 공명과 부귀가 여러 사람 가운데 으뜸이었는데, 그 居所를 松齋라 불렀다. 그리고 그의 부친인 권염은 萬戶의 符를 허리에 차고 외척의 권세를 누리며, 崇敎里의 연못가에 누각을 세워 '운금'이라는 편액을 붙이고 그의 아버지와 宗族들을 즐겁게 하였다. 익재 문충공이 그를 위해서 記를 지었으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었다.¹⁶⁾

정축년(1337년)에 송교리의 연못가에 누각을 세워 '운금'이라 편액하였는데 익재 시중이 그 기문을 썼다. 매번 꽃이 필 때마다 盛饌을 갖추고 큰 손님들을 맞이하여 부친에게 獻壽의 잔을 올렸다. 자손들이 모두 모였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흠모하였다.¹⁷⁾

-
- 15) 京城之南有池 可方百畝 環而居者 閭閻煙火之舍 鱗錯而櫛比 負戴騎步 道其傍而往來者 絡繹而後先 豈知有幽奇閑廣之境 酒在其間耶 後至元丁丑夏 荷花盛開 玄福君權侯 見而愛之 直池之東 購地起樓 倍尋以爲崇 參丈以爲袤 不礎而楹 取不朽不瓦而茨 取不漏 梢不斲不豐而不撓 聖不廢不華而不陋 大約如是 而一池之荷 盡包而有之 於是請其大人吉昌公與兄弟姻婭 觴于其上 怡怡愉愉 竟日忘歸 子有能大書者 使之書雲錦二字 揭爲樓名 余試往觀之 紅香綠影 浩無畔岸 狼藉風露 搖曳烟波 可謂名不虛得者矣。(李齊賢, <雲錦樓記>, 『益齋亂藁』 권6, 『韓國文集叢刊』 2, p.555)
- 16) (權希顔의) 大父昌和公功名富貴冠諸君 號其所居曰松齋 而尊公腰萬戶之符 踞外戚之勢 作樓于崇敎里蓮池之傍 額曰雲錦 樂其親以及宗族 益齋文忠公爲之記 吁盛矣。(李穡, <葵軒記>, 『牧隱文集』 권3, 『韓國文集叢刊』 5, pp.20~21)
- 17) 歲丁丑 作樓于崇敎里蓮池之傍 額曰雲錦 益齋侍中爲之記 每花開 設盛饌 邀大賓上尊公壽 子姓咸集 時人歆慕之。(李穡, <重大匡玄福君權公墓誌銘并序>, 『牧隱文集』 권16, 위의 책, p.143)

이색은 권염을 중심으로 한 그 일족이 운금루를 세우고 잔치를 베풀어 풍류를 즐긴 것이 당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으며, 또 이제현이 그 누각에 기문을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그것이 당시의 대단히 성대한 일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좌예가 연지에서 우중에 연꽃을 감상하던 풍류는 다시 그 곳에 세워진 운금루와 더불어 그 경관을 감상하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게 되었으니, 이제현은 季明叔의 「운금루의 네 노래(雲錦樓四詠)」에 和韻한 작품을 통해 운금루의 연꽃을 시로 짓기도 하였다.

李齊賢, <연못의 향기로운 달(荷洲香月)>, 4수 중 첫째 수¹⁸⁾

얽은 파도 잔잔하고 달빛 일렁이는데
십 경의 연꽃에 한 번 바람이 부네.
임평산 밑에서 유숙하던 시절을 생각하니
술 깨자 몸은 그림 같은 배에 있었네.

微波澹澹月溶溶 十頃荷花一道風
記得臨平山下宿 酒醒身在畫船中

이 시에서 용화지는 십 경의 연못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제현이 살던 시기에 이 연못은 여전히 연꽃이 만개하여 시인묵객들의 흥취를 돋구는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평도 이 곳을 방문하여 좌예를 기리는 시를 남겼다.

閔思平, <의현 홍탁과 연꽃을 감상할 것을 약속하다(約義軒洪鐸賞蓮)>¹⁹⁾

18) 李齊賢, 「和季明叔雲錦樓四詠」, 『益齋亂藁』 권3, 『韓國文集叢刊』 2, p.526. *작품의 소재명은 각기 荷洲香月·松壑翠雲·漁磯晚釣·山舍朝炊이다.

19) 閔思平, 『及菴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3, p.62.

머리 위의 서리맞은 쪽 같은 머리털에 해마다 놀라는데
 눈에 보이는 운금루를 해마다 저버렸네.
 세상살이에 일이 없기는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
 오늘에야 용화원 못에서 水仙을 찾아보네.

頭上霜蓬驚歲歲 眼中雲錦負年年
 世間無事真難得 今日龍池訪水仙

이 시는 생활에 부대끼다 보니 가까이 있는 승교사 연지의 운금루를 찾을 틈이 없다가 오늘에야 이 곳을 찾아와 즐긴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결구는 용화원 못에서 水仙을 찾는다고 하여 옛날 여기에서 연꽃을 감상하던 광예를 신선에 비기고 있음이 이채롭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용화사의 연지가 시인묵객들의 완상처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현의 문생이었던 이색도 이 연못을 대상으로 시를 지었다.

李穡, <용화지의 연꽃을 감상하려는데 핀 꽃이 없다(將賞蓮龍化池 花無開者)>²⁰⁾

우산에 나막신 신고 연꽃을 감상하려는데
 푸른 물결이 거울과 같고 가벼운 안개가 깔렸네.
 늙은 용은 참으로 무정하구나.
 꽃을 피우지는 않고 다만 잠만 자고 있으니.

傘履登山欲賞蓮 綠波如鏡曳輕烟
 老龍的是無情甚 不放花開只管眠

이 시는 용화지의 연꽃이 아직 피지 않는 이유를 늙은 용이 무정하게도

20) 李穡, 『牧隱詩藁』 권17, 『韓國文集叢刊』 4, p.205.

잠만 자느라고 꽃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발상이 특이하고 신선하다. 꺾여의 풍류를 알고 있었던 이색으로서, 꽃이 피지 않은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용화지의 풍류를 계승했던 운금루의 풍류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운금루가 있었던 연못에는 현복군 권염이 죽은 뒤 40년이 되지 않아 연꽃이 없어지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이색의 다음 작품이다.

李穡, <오월 이래로 연꽃을 무척이나 감상하고 싶었는데 하루는 노복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니 운금지의 꽃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 (중략) …… 이미 돌아오니 날이 저물었는데 2수를 짓다(仲夏以來 苦欲賞蓮 一日遣長鬚往候 則雲錦池花亡久矣 …… (中略) …… 既歸則日已晚矣 吟成二首)>, 2수 중 둘째 수²¹⁾

운금 누대에는 그림자가 물결에 거꾸러졌는데
풍류스러운 현복군은 名家였네.
世臣의 명망은 詩書의 못에 중하였고
군자의 명성은 水陸의 꽃에 높았네.²²⁾
홍망이 분명한데²³⁾ 개똥벌레가 다시 풀로 변하고
쏟아지게 읊는데 물오리는 노을과 함께 하네.
인간 세상에 사는 것이 목은 자취를 이루니

21) 李穡, 『牧隱詩藁』 권18, 위의 책, p.215. 이 시의 원제목은 <仲夏以來 苦欲賞蓮 一日遣長鬚往候 則雲錦池花亡久矣 獨廣濟池盛開 於是命駕而往 緣堤信馬 偶得任中郎林亭邀天台懶殘子同賞 公設食作碧筒飲 向晚解携 因過南溪院 既歸則日已晚矣 吟成二首>이다.

22) 南宋의 철학자 周敦頤는 <愛蓮說>에서 연꽃의 덕을 君子에 비유하였다.

23) 『禮記』에서는 썩은 풀이 개똥벌레가 된다(腐草爲螢)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개똥벌레가 풀로 변하였다고 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 한 수에 글자는 젖은 까마귀 같네.

雲錦樓臺影倒波 風流玄福是名家
 世臣望重詩書澤 君子名高水陸花
 歷歷廢興螢化草 寥寥賦詠鷺兼霞
 人間俯仰成陳跡 一首新詩字濕鴉

이 시에서는 개동벌레가 다시 풀로 돌아가듯이 한 시대를 풍미하던 현 복군 권염의 풍류가 지난 자취로 남은 윤금루에서 느끼는 착잡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의 제작연대가 1379년(禰王 5)인 것을 감안한다면,²⁴⁾ 광예로부터 시작되었던 용화원 연지에서 연꽃을 감상하던 풍류는 권염이 그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이 시를 지을 무렵에 이미 연꽃이 황폐화되어 그 풍류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종언을 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광예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

4.1. 「동국사영」 작품군에 투영된 광예 고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광예를 다룬 작품에서 언급되는 것은 광예가 비가 올 때면 맨발로 우산을 가지고 용화원의 승교사 못가에 가서 연꽃을 구경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이제현의 『역옹패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예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지만 「동국사영」 작품군에서는

24) 李穡의 『牧隱詩稿』는 작품이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권13의 중간부터 권 27의 후반부까지의 시는 모두 1379년에 지어진 작품들이다.

대개 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여야겠다. 광예의 행동에 대한 당시의 상반된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현에 의해 「동국사영」의 하나로까지 편입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동국사영」에 들어 있는 광예를 다룬 작품은 그 제목이 대개 <① 광한림이 ② 비를 맞으며 ③ (三池의) 연꽃을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최당의 작품에서와 같은 커다란 변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²⁵⁾ 후대인의 해석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우선 민사평의 작품을 보면, 그 제목이 <郭翰林雨中賞蓮>²⁶⁾으로 되어 있다.

만 송이 연꽃이 싱그러운 위아래의 못에
幽人 이 흥이 나서 혼자 찾아오는 때이네.
한 번 내린 부슬비에 연꽃 기운이 가득한데
몇 리의 향기로운 바람이 버들가지에 떠 있네.

萬柄亭亭上下池 幽人乘興獨尋詩²⁷⁾
一番細雨蒸荷²⁸⁾氣 數里香風泛柳絲

이 시는 광예가 연못을 찾아가 연꽃을 감상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작품이다. 기구와 승구에서 광예가 흥이 나서 찾아오는 모습을 제시한 다음, 전구와 결구에서는 한 번 내린 부슬비로 인해 연꽃 기운이 가득한 못

25) 崔謙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는 줄고, 「崔謙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pp.77~79 참조.

26) 閔思平, 「東國四咏 益齋韻」, 『及菴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3, p.61.

27) 민병수 교수는 이 시의 ‘詩’는 ‘時’의 잘못된 듯하다고 했다.(閔丙秀, 『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p.115 참조)

28) 『東文選』, 권21에는 ‘荷’가 ‘霞’로 되어 있다.

의 모습과 몇 리에 걸친 바람의 영향으로 연꽃의 향기가 버들가지에 떠 있음을 그려냄으로써 연꽃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의 탈속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는 곡예의 관료로서의 모습보다는 연꽃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幽人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한림학사로서 개경에 살면서도 자연을 즐기는 그의 은자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만하다. 이것은 이제현과 친교를 맺고 있었던 민사평으로서, 이제현이 이 곳에 새로 세워진 <운금루기>에서 언급한 도회 속의 자연이라는 인식과도 통하는 것이므로, 아마 이제현과의 교류 속에 얻게 된 교감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현의 <운금루기>에 나오는 해당대목을 보기로 하자.

산천을 구경할 만한 빼어난 곳이 반드시 궁벽하고 먼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도읍한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진실로 일찍이 산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명예를 다투는 자는 조정에 있고, 이익을 다투는 자는 시장에 있으니, 비록 형산·여산·동정호·소상강을 반걸음만 나서면 굽어볼 수 있는 곳에 늘어놓아 만날 수 있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사슴을 쫓으면 산이 보이지 않고, 금을 움켜쥐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며, 가을의 털끝은 살피면서 수레에 실은 나뭇짐은 보지 못한다. 마음이 온통 쏠린 곳이 있어서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²⁹⁾

여기에서 이제현은 명예나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산천의 빼어난 경치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마음이 온통 쏠린 곳이 있어서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

29) 山川登臨之勝 不必皆在僻遠之方 王者之所都 萬衆之所會 固未嘗無山川也 爭名者於朝 爭利者於市 雖使衡廬湖湘 列于跬步俯仰之內 將邂逅而莫之知有也 何者 逐鹿而不見山 攬金而不見人 察秋毫而不見輿薪 心有所專 而目不可他及也。(李齊賢, <雲錦樓記>, 앞의 책, p.554~555)

고 했다. <운금루기>가 1337년 무렵에 쓴 글이라는 사실과, 이제현이 「동국사영」을 제작한 시기가 『역옹패설』을 지은 1342년부터 민사평의 몰년인 1359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³⁰⁾ 민사평은 이제현의 이런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민사평은 이제현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광예 고사의 현장이었던 용화원 승교사의 연못이 바로 도회 속의 청정한 땅임을 아울러 인식함으로써 광예의 모습이 도회 속에서도 자연의 승경을 즐기는 탈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이 시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정추의 작품은 제목이 <郭翰林預冒雨賞蓮有詩>³¹⁾으로 되어 있는데, 細註에 “좌주 익재 시중이 명하여 읊다(座主益齋侍中命賦).”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는 그의 좌주 이제현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꽃은 아득하고 비는 실실이 내리는데
십 경의 모난 못은 경관이 특히 기이하네.
응당 ‘편안 안(安)’ 한 글자를 위하여 읊고는
먼지 낀 두건을 접고 한참 동안 서 있었으리.

荷花漠漠雨絲絲 十頃方塘景特奇
應爲吟安一箇字 塵巾折角立多時

이 시는 광예가 비를 맞으며 찾아간 연못의 경관을 짐작으로 표현한 다음, 시를 읊은 다음에 먼지 낀 두건을 접고 한참 동안 서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전구의 표현이다. 광예가 그곳을 찾아가 시를 지은 동기가 ‘편안 안(安)’ 한 글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 때 ‘安’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30) 拙稿,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앞의 책, p.300 참조.
31) 鄭樞, 「東國四詠」, 『圓齋集』 卷上, 『韓國文集叢刊』 5, p.196.

있겠으나, 육체적인 편안함보다는 정신적인 안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예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굳이 비가 오는 속에 우산을 쓰고 연꽃을 구경하러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육체적인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용화원의 연못에 가서 연꽃을 감상하였다는 것은 연꽃을 통한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추는 이 시를 통해 광예가 추구하는 정신적 지향이 마음의 안정에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광예의 이 고사가 지니는 의미는 바로 현실적으로 보장된 육체적 안온을 거부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은 사실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정추가 인식한 광예 고사의 의미라 하겠다.

한수의 작품은 제목이 <郭翰林冒雨 賞三池蓮花>³²⁾로 되어 있다.

시인의 기호는 여느 사람과 다른데
 흥이 일어나면 흐리고 맑음에 어찌 구애되리오?
 三池를 두루 감상하러 번거롭게 왕복한 것은
 푸른 잎새에 밝은 구슬 쏟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네.

詩人嗜好與人殊 興發陰晴豈有拘
 賞遍三池煩往復 要看綠葉瀉明珠

이 시는 광예가 비를 맞으며 연꽃을 감상하러 간 것을 여느 사람과 다른 시흥 때문으로 파악한 다음, 그가 삼지를 두루 찾아다닌 것은 바로 푸른 잎새에 밝은 구슬이 쏟아지는 모습 곧 활짝 핀 연꽃을 구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빗속에 연꽃을 구경하러 가는 것을 시인의 기호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나름대로 독특한 것이지만, 활짝 핀 연꽃을 표현한 전구의 표현도 이미 최해의 <빗속의 연(雨荷)> 시에서 비슷

32) 韓脩, 『奉和益齋相國東國故事四詩』,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 5, p.260.

하게 형상화된 바 있다.

후추 8백 섬을 쌓아 놓았다고³³⁾
 천년토록 그 어리석음을 비웃었네.
 어찌하여 푸른 옥의 말[斗]로
 종일토록 밝은 구슬[明珠]을 되는가?³⁴⁾

貯椒八百斛 千載笑其愚
 何如綠玉斗 竟日量明珠

이 시의 전·결구에서 최해는 연잎을 ‘綠玉斗’로, 연꽃을 ‘明珠’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현과 동갑이었던 최해의 이 시를 한수가 읽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수는 이 구절을 이용하여 위의 시상을 엮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상상성에도 불구하고 한수가 광예의 고사를 읊은 이 시는 시인의 기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에 기초함으로써, 광예의 시인다운 면모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광예 고사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이상 3인의 작품은 모두 광예의 고사가 지니는 의미를 나름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민사평의 시는 광예가 연꽃을 찾아간 행동을 도회 속에서 자연을 찾는 탈속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추의 시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중에 연꽃을 구경하러 간 것은 바로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수의 시는 비를 맞으며 연꽃을 보러 간 것은 바로 광예가

33) 당나라 재상 元載가 죽음을 당한 뒤에 家産을 몰수하니 후추가 800섬이요, 다른 재산도 그렇게 많았다고 한다.

34) 原註에, 牧隱이 말하기를 “이것은 富饒한 사람을 풍자함이다.(牧隱云 此諷不廉富饒者)”라고 했다는 언급이 있다.

여는 사람과는 다른 시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가 관료라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인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곽예의 고사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와 풍류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어진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래는 권근의 작품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문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김시습의 작품이 유일하다. 김시습의 작품은 제목이 <郭翰林冒雨 賞三池蓮花>³⁵⁾로 되어 있다.

가느다란 이슬비가 푸른 적삼을 적시는데
 三池에서 흥이 나서 대궐 술에 얼큰히 취하네.
 전부터 연꽃³⁶⁾이 나를 편애함이 기꺼웠더니
 맑은 향기 풍겨 와서 옥당의 簪纓을 일어나게 하네.

廉纖細雨濕青衫 乘興三池禁醞酣
 前喜六郎偏愛我 清香來惹玉堂簪

이 시는 이슬비 속에 삼지에서 흥이 나서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술에 얼큰히 취한 곽예의 모습을 그린 다음, 연꽃의 맑은 향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감정의 고조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앞의 시들과는

35) 金時習, 『詠東國故事』, 『梅月堂集』, 『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13, p.113. 『국역매월당집』 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149)에서는 郭翰林을 郭輿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36) 六郎은 연꽃의 異稱이다. 唐나라 楊六郎[楊再思]의 여섯째 아들 昌宗의 용모가 아름다워 연꽃에 비긴 데서 나온 말이다. 『唐書』 「楊再思傳」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昌宗의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楊再思는 항상, “사람들은 六郎을 연꽃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참으로 연꽃이 육랑과 비슷하다고 할 따름이다.”라고 했다.(昌宗以姿貌倖 再思每曰 人言六郎似蓮花非也 正謂蓮花似六郎耳)

달리, 광예가 삼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설정되지 않고 다만 삼지라는 연못에서 연꽃을 즐기는 광예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전구에서 ‘연꽃이 나를 편애한다’는 표현은 시인[我]이 사물[六郎]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시인을 사랑한다는 인식으로서, 일상인의 사물인식 체계를 뒤집는 사고방식이다. 광예가 연꽃을 구경하는 것은 시인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꽃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시인을 부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김시습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시에서는 광예의 행동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我]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파악함으로써 사물과 대상[광예]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도 아울러 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제작된 김시습의 작품은 고려시대의 작품과는 달리 자연과 시인 사이의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빗속에 연꽃을 찾아가는 여정과 노고는 배제시키고 오로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대상[연꽃]과 시인 사이의 교감만을 드러내어 그것을 즐기는 시인의 풍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4.2. 기타 작품에 투영된 광예 고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예 고사의 현장인 용화원 승교사의 연못은 그곳에 현복군 권염이 1337년에 운금루를 세우고 그의 종족들이 모여 즐기면서 풍류를 이어가는 장소로 그 명승과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그것이 단절되자, 그 풍류를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색의 다음시가 그 예가 될 것이다.

李穡, <출타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운금루를 생각하다(欲出未能 有懷雲錦)>, 3수 중 첫째 수³⁷⁾

37) 李穡, 『牧隱詩藁』 권18, 『韓國文集叢刊』 4, p.215.

放翁³⁸⁾의 시어에서 淸游를 생각하고
말 한 마리와 하인 두 명인데 시내 길에는 가을이네.
목은 노인은 병을 앓은 뒤라 다리에 힘이 없으니
가랑비에 수레를 타더라도 또한 풍류이리.

放翁詩語想淸游 一馬二僮溪路秋
牧老病餘無脚力 扶輿細雨亦風流

이 시는 윤금루가 곽예 고사의 현장이었던 사실을 옆두에 두고 지은 작품이다. 곽예가 비가 오면 맨발로 우산을 들고 용화원으로 갔던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병을 앓은 뒤라 걷지 못하고 가랑비 속에 수레를 타고 가는 자신의 풍류를 곽예의 그것과 대비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사정은 전구의 '亦'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곽예가 맨발로 갔던 우중에 연꽃을 구경하러 갔던 그 일도 풍류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자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레를 타고 가는 것 '또한' 풍류인 것은 분명하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곽예가 <상련> 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고려인의 풍류가 이제현을 거쳐 그의 문생이었던 이색에게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풍류가 굳이 용화원의 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곽예의 일화를 알고 있었고, 또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소탈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의 대명사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면 곽예와 같은 풍류를 재현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곽예의 일화가 일어난 장소였던 용화지는 「동국사영」의 전통을 이어간 문인은 물론, 동국사영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문인들도 그런 범주의 풍류에 젖게 만드는 장소

38) 放翁은 南宋의 시인 陸游(1125-1210)의 號이다.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곽예의 고사는 여타 「동국사영」의 대상 장소인 김부식의 江西寺, 정서의 鄭瓜亭, 최당의 皺巖이 후대에까지 보존되었던 것과는 달리 삼지, 또는 운금루의 연못이 14세기말에 황폐화된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후대의 문인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그의 일화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곽예의 고사를 기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곽예 고사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비슷한 정경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사를 원용한 작품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鄭希良(1469~1502)의 다음시가 그 예가 된다.

鄭希良, <운금루에서 연꽃을 감상하다(雲錦樓賞蓮)>³⁹⁾

꽃자루마다 연꽃은 십 장이나 되는데⁴⁰⁾
홀로 서니 근심스러이 이웃이 없네.
옛 잃은 울퉁불퉁한데
새 꽃은 좋은 손님인 듯하네.
風味는 늙어도 오히려 남아 있음을
徐花潭과 黃眞伊에게서 다시 깨닫네.
이 粲然한 것을 만나니
聲色의 티끌을 씻을 만하네.
구차스럽게도 열매를 따고 싶었으니
韓子⁴¹⁾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네.
천년토록 濂溪⁴²⁾ 노인은

39) 鄭希良, 『虛庵遺集』 권2, 『韓國文集叢刊』 18, p.34.

40) 연꽃의 크기가 십 장이나 된다는 말은 당나라 韓愈의 <古意> 시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는 그 시에서 “太華峰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이라 했다.

41) 韓子是 唐의 시인 韓愈를 가리킨다. 韓愈는 <古意> 시에서 중국 華山의 蓮花峰을 연꽃에 비유하고 “어찌하면 긴 사다리 위에서 열매를 따서 七澤에 심어 根株를 이을까?”(安得長梯上摘實 下種七澤根株連)라고 읊은 바 있다.

나와 회포가 친근하다네.

柄柄十丈荷 獨立耿無隣
 舊葉低復學 新花如佳賓
 風味老猶在 更覺徐娘眞
 邂逅此粲者 可洗聲色塵
 區區欲摘實 韓子眞癡人
 千載濂溪翁 與我懷抱親

이 시는 윤금루의 연꽃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기에서의 윤금루는 개성에 있던 권염이 지은 누각이 아니라 수원에 있던 누각이다.⁴³⁾ 수원의 윤금루는 고려말에 부사 全成安이 짓고 이색이 記를 지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世祖 때 부사 閔孝悅이 중건하고 申叔舟가 記를 지었던 곳이다.⁴⁴⁾ 따라서 이 시는 관예의 고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 정희량은 김시습보다 30여 년 늦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동국사영」의 전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지은 것으로서, 「동국사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시는 윤금루 앞에 펼쳐진 연꽃을 보고 느낀 감회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에서 연상되는 관념에 따라 시적 의경을 전개시키고 있다. 시인은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연꽃에 비겨 바라보면서, 늙어도 風情은 사라지지 않음을 개성의 서화담과 황진이의 일화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 이렇게 찬연한 연꽃의 모습을 보면서 세속의 聲色

42) 濂溪는 南宋의 學者 周敦頤를 가리킨다. 그는 연꽃의 덕을 칭송하는 <愛蓮說>을 지었다.

43) 윤금루가 수원에 있다는 사실은 이 시와 동시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의 다른 작품 <登雲錦樓 復次止亭挹翠巖>(5수 중 둘째 수: “東西南北經行遍 天地中間獨立翁 乾達山前逢晚雨 龍岩寺裡望江風”, 鄭希良, 앞의 책, 같은 곳)에서 알 수 있다. 乾達山(또는 建達山)은 바로 수원의 서남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水原都護府』 ‘樓亭’ 참조.

을 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선이 되려고 관념의 차원에서 華山 蓮花峰의 연밭을 따려고 했던 韓愈를 비판하는 한편,⁴⁵⁾ 연꽃에서 군사적 풍모를 찾으려 했던 周敦頤를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와 곽예의 고사의 연결 고리는 “風味는 늙어도 오히려 남아 있음을 徐花潭과 黃眞伊에게서 다시 깨닫네.(風味老猶在 更覺徐娘眞)”라고 한 3연의 표현이다. 이것은 곽예가 <상련>에서 “다만 꽃을 보는 玉堂의 손님이 있어 風情은 아직 줄지 않았는데 살쩍은 실과 같네.(唯有看花玉堂客 風情未減鬢如絲)”라고 한 것과 같은 발상법에서 출발한 것으로, 곽예는 그 늙은이의 風情을 연꽃을 감상하는 데서 풀려고 한 데 대하여 正희량은 松都三絶로 널리 알려진 서화담과 황진이의 일화를 통하여 노인의 風味를 다시 깨닫는다고 하였다. 자연을 향한 노인의 풍정을 남녀의 애환으로 바꾸어 해석한 측면이 특이하지만, 그것들이 다같이 연꽃이라는 대상 또는 매개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두 작품의 연관성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곽예 고사를 다룬 작품들은 연꽃을 매개로 하여 곽예가 비를 맞으며 삼지에서 연꽃을 감상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일화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고리를 중심으로 곽예의 풍류와 자신의 풍류를 대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색의 시는 곽예가 연못을 걸어서 찾아가는 모습에 견주어 수레를 타더라도 같은 풍류라고 하였고, 正희량의 시는 곽예가 늙어서 느끼는 연꽃에 대한 풍정에 견주어 서화담과 황진이의 풍미로 전환하여 늙은이의 풍미와 동귀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들은 곽예 고사의 일면, 즉 빗속에 연못을 찾아가는 모습 또는 그곳에서 읊은 시의 한 부분만을 연결 고리로 사용하여 그 맥락을 잇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 華山 蓮花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고 한다. 華山有蓮花峰: 又古來傳說山頂有池 生千葉蓮花 服之便可成仙 故名華山.(孫映遠 主編, 『中國歷代詠花詩詞鑑賞辭典』, 江蘇省新華書店, 1989, p.800)

5. 맺음말

이상에서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주요한 대상이 되는 곽예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기로 하겠다.

곽예는 고종 때 장원 급제하여 전주사록·침사부녹사·판도정랑·보문서대제·지제고·필도치·전법총랑·춘궁시강학사·좌승지·국자감대사·성·문한학사·지밀직사사·감찰대부 등을 역임한 전형적 관료로서 성품이 평담·경직하고 겸손하고, 글과 글씨에 빼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한림학사로 있을 때, 비오는 날 용화지의 연꽃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이 일을 풍류스럽게 여긴 후인들이 그의 풍치를 높이 사서 그 일을 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곽예가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용화원 승교사의 연못에 비를 맞으며 가서 연꽃을 구경하고 시를 지었다는 고사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현의 『역용패설』에 의하면, 당시의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난 체 하는 ‘聖者’로 보는 시각과 풍류스러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현은 그의 행동을 풍류로 보아 「동국사영」의 하나로 뽑았던 것이다. 「동국사영」의 전통을 계승한 후대의 시인들은 대개 이제현의 시각에 동조하여 그의 행동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곽예가 즐겨 찾았던 용화원 승교사의 연못가에는 1337년 현복군 권염이 운금루를 지어 그의 풍류를 계승하다가 결국 1379년 무렵에 연꽃이 폐사하자 그곳에서의 풍류적 전통은 막을 내리고, 곽예 고사의 현장은 결국 사라지게 됨으로써 후인들이 곽예 고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곽예 고사의 시적 변용과 계승을 살펴보면, 그 주된 대상이 되는 곽예의 雨中賞蓮에 대해 긍정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민사평·정추·한수의 작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곽예의 삼지에서 풍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사평의 시는 곽예가 연꽃을 찾아간 행동을 도회 속에서 자연을 찾는 탈속적인 모습을 평가하였고, 정추의 시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雨中에 연꽃을 구경하러 간 것은 바로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수의 시는 비를 맞으며 연꽃을 보러 간 것은 바로 곽예가 여느 사람과는 다른 시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가 관료라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인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김시습의 작품은 앞의 시들이 모두 곽예가 연못을 찾아가는 여정과 연못에서의 시를 짓는 모습 양자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에 반해, 여정은 고려하지 않고 연못에서 연꽃을 즐기는 시인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시습의 시는 오로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대상[연꽃]과 시인 사이의 교감만을 드러내어 그것을 즐기는 시인의 풍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동국사영」에 들지 않으면서 곽예 고사와 관련성을 지닌 이색과 정희량의 작품은 연꽃을 매개로 하여 곽예가 비를 맞으며 삼지에서 연꽃을 감상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일화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고리를 중심으로 곽예의 풍류와 자신의 풍류를 대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색의 시는 곽예가 연못을 걸어서 찾아가는 모습에 견주어 수레를 타더라도 같은 풍류라고 하였고, 정희량의 시는 곽예가 늪에서 느끼는 연꽃에 대한 풍정에 견주어 서화담과 황진이의 풍미로 전환하여 늪은이의 풍미와 동계의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곽예 고사의 일면만을 연결 고리로 사용하여 그 맥락을 잇고 있다고 하겠다.

參考 文獻

『唐書』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譯註高麗史』, 太學社, 1987.

『禮記』

『增補文獻備考』

金時習, 『국역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梅月堂集』, 『韓國文集叢刊』 13.

金宗直, 『靑丘風雅』.

閔丙秀, 『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閔思平, 『及菴詩集』, 『韓國文集叢刊』 3.

成範重, 『金富弼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2.

——,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韓國漢詩研究』 4집, 太學社, 1996, 12.

——, 『崔謙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12.

李穡,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

——, 『牧隱詩藁』, 『韓國文集叢刊』 4.

李齊賢, 『櫟翁稗說』.

——, 『益齋亂藁』, 『韓國文集叢刊』 2.

鄭樞, 『圓齋藁』, 『韓國文集叢刊』 5.

鄭希良, 『虛庵遺集』, 『韓國文集叢刊』 18.

162 울산어문논집 제13·14합집 (1999.11.30)

韓脩,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 5.

洪萬宗, 『小華詩評』, 趙鍾業편,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